

“대기업 농업진출 원천 봉쇄해야”

김중희 의원, 이개호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스마트팜 조성 농업 진출 발판될까”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중희 의원(사진 왼쪽·김제, 부안)은 9일 이개호(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스마트팜이 대기업의 농업 진출 교두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 20년 동안 임금상승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데 반해 쌀값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며 쌀 목표가격(80kg 기준)은 최소 21만원 이상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중희 의원은 “농식품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시설 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은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할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딸기와 토마토, 파프리카 등 6대 시설채소(과일 포함)는 재배량과 생산량,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미 정점을 찍었다.

이런 상태에서 스마트팜에서 대규



모로 재배된 시설채소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

이 경우 스마트팜에 참여한 중소농업인들은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한 채 대기업에 시설을 팔아넘길 위험성이 크다는 것.

이같은 과정을 통해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우려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스마트팜 참여를 막기 위한 1차적인 조치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채소(과일 포함)는 전량 수출해야 마땅하며 장관이 대기업의 농업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가까스로 지켜지고 있지만 축산분야는 계열화라는 이름으로 90% 이상 대기업에게 잠식당했다”며 “축산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된 소자화가 다른 농업 분야로 확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성기자



단식종인 전교조 위원장과 면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위원장(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중인 조창익(오른쪽)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삼성 180조 투자계획 발표에 홍영표 대표 “긍정적 평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삼성이 앞으로 3년 간 180조 원 투자 및 4만명 직접채용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이) 130조원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 투자하고 인공지능과 바이오, 전자부품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납품인가를 인상하는 등 협력사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삼성이 작년에도 60조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여기서 20조원만 풀면 200만 명한테 1000만원씩을 더 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일부 언론이 비판했지만 지난번에 말한 삼성 20조 발인 취지가 바로 이런 것”이라며 “생산적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대기업과 함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머리를 맞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투자확대를 부정적 방향으로 보면 안된다. 재벌 대기업의 낡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서 상생구조를 만드는 데 차질이 없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시

갈날 무더진 청문회, 정책 검증에 초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가족 문제' 발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보다는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진 분위기다.

배우자의 불법 건축물 논란과 아들의 금호아시아나그룹 특혜 인사 의혹 등 가족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공세 수위는 높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간사로 활동한 이 후보자가 사실상 ‘전직 의원 프리미엄’ 덕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수장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는 여야 모두 부담인 터라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치켜세우는 데도 적지 않았다.

청문회 질의 시작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가족 신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10년간 해외 출장의 70%가 넘는 일본 방문이 부적절해보인다고 그 내역을 달라고도 독촉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서자 갈날은 금세 무뎠다. 의원들의 질의에선 이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민원도 잇따라 나왔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질의에 앞

서 “장관으로 내정돼 축하한다. 경륜도 많고 능력도 겸비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덕담을 건넸다.

같은당 김태홍 의원도 “장관 지명 축하한다. 농업인들도 지명을 환영하더라도 운을 댔 뒤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확대론에 대한 ‘군기집기’ 수준의 질의를 해왔고,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농정 확대는 명약관화(불보듯 뻔히 보인다)다. 취임하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언급했다.

김성찬 의원 역시 21대 총선 앞두고 “중도 사퇴”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임기 끝날때까지 열심히 해달라”는 격려성 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공) 장관 취임할텐데 이개호호(號) 농경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지 정리해달라”고 했고, 서삼석 의원은 장관 취임 후 내세우고픈 슬로건을 질문하고선 “농촌에서 필요한 게 슬로건이 아니다. (취임하면 대통령에게) 농업·농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함께하길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후 농촌 여성의 권익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뉴스시

당권주자 이해찬, 文 대통령과 친분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인간적으로 친하다. 30년 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다 안다”고 친분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나와 “문 대통령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충분히 한 경험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한 팟캐스트에서 참여정부 시절을 회고하며 문 대통령을 ‘문 실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 당시 직책을 말한 거지, 현시점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권 경쟁자인 송영길 의원이 이 의원을 향해 불통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30년째 비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 방밖에 없다”면서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 나온 사람들이 유시민 장관이 첫 번째 보좌관이었고 지금 일자리수석을 하고 있는 정태호 비서관도 저희 보좌

관을 했고 고공진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전부 제 비서관을 했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어 “다 그런 사람들이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해운 사람들”이라며 “남을 흉내내고 자기가 잘되는 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협치내각에 대해서는 “야당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할 문제”라면서 “우리가 누구를 입각시키겠다고 하면 마치 사람을 빼가는 것처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를 해서 파트너 상대 쪽에서 동의가 되면 입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대권 도전설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 역할이 아닌 것들을 지루 하니가 의심을 받는 것 같다”면서 “차라리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그걸로 가면 되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 내에서 잘 수용이 될지 모르겠다”고 분석했다.

/뉴스시

실업률·물가상승 등 실질적 경제지표 최악

유성엽, 기재부 잘못 꼬집어
짜퉁 소득 정책 재검토 필요

유성엽(기획재정부,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기재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시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유 의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8%로 당초 예상치보다 계속 하향하고 있다”며 “사실 성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실업률과 물가

상승 등 실질적 경제 지표는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고 우울한 현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금의 경제 불황은 전적으로 기재부의 잘못”이라고 규정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어져 온 경제실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짜퉁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 잘못된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벌어진 일인데도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을 과오를 시장에 억지로 떠넘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바로 잡지 않으면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텐데, 그때마다 삼성 이재용 회장 만나서 뒤처리 해달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 의원은 “더 이상 경제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경제 정책의 방향성과 기초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 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